KLTA NEWS + 2013 Spring

KLTA NEWS

제 30대 신원섭 산림청장 취임

신원섭 산림청장은 2013년 3월 18일 오전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신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산림과 임업 분야에 널리 확산시켜 산림에서 국민행복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신 청장은 이어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보호, 산림일자리 창출 등 임업인 소득증대,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글로벌 협력확대 및 북한황폐산림 복구준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산림정책 현장에서 국민과 임업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행복시대' 숲의 역할 강조

제68회 식목일 행사 참석…전국에서 6만명이 나무 47만 그루 심어

박근혜 대통령은 제68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오후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서 지역주민과 학생, 임업인, 산림공무원 등 500여명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과 함께 수목원 내 2ha의 공간에 전나무 3000 그루를 심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지난 1973년 치산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고 이번 식목일은 자신의 취임 후 처음 맞는 날이어서 이날 행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나무를 심은 뒤 치산녹화를 이뤄낸 국민의 노력을 기리며 관계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숲을 국민행복이 실현되는 일터·쉼터·삶터로 재창조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산림 부문에서도 창조경제를 접목해 일자리 창출, 숲의 휴양·치유기능 강화, 산림재해 대비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곳곳에서 각급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국민이 행복한 나무심기'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식목행사를 통해 6만여 명이 각종 나무 46만8000여 그루를 심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인천 사무관(042-481-8807)

김용하 신임 산림청 차장 취임

제27대 차장, 요직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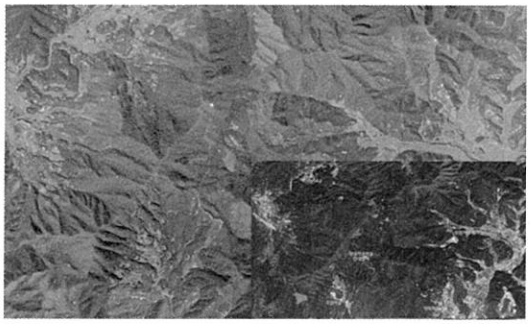
김용하(金龍河) 제27대 산림청 차장이 22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김용하 차장은 기술고시 18회 출신으로 지난 86년 산림청과 인연을 맺은 이래 국립수목원장,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장 등 산림청의 요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다.국립수목원장 재직 당시 광릉숲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데 기여('10.6.2.자 등재)하였고 우리나라 자생식물 자원의 보호 특히, 희귀·특산식물 보전원 조성과 증식기술개발 등 국립수목원 핵심연구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해외자원협력관 때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출범에 기여하고 양자협력국가 확대, 해외산림개발 임지 확보추진 등 대내·외 업무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특히 차장 취임 직전 산림자원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산림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 '산림가치 재창조 종합대책'수립 등 산림정책발전에 기여했다.강원 삼척 출신으로 강릉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임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아이호대 대학원에서 자연휴양학 석·박사를 수료하였으며 2008년에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성격은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직원과의 교감에 힘써 조직 내 리더십을 겸비하고 상·하간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의 : 산림청 운영지원과
이용석 사무관(042-481-4041)

황폐했던 축령산이 한국 대표 치유숲으로

40년 전후 항공사진 · 임상도를 GIS로 중첩, 생생한 비교사진 얻어내



한때 황폐한 산지였던 전남 장성 축령산 일대가 40년 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치유의 숲으로 변한 모습을 생생하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전남 장성 축령산 일대의 1971년 및 2010년 항공사진과 임상도를 GIS를 활용해 중첩시켜 분석해 똑같은 지역의 40년 전·후 모습을 밝혀내고 이를 공개했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 당시에는 나무가 없던 무립목지가 현재는 31년~40년생 이상의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축령산 일대의 숲은 우수 산림경영인인 고 임종국 선생이 나무심기에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곳이다. 임 선생이 가뭄에 어린나무를 살리려고 산 정상까지 물지게를 지고 갔던 일화는 유명하다.

문 의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조영진 주무관(042-481-4125))

"산림에서 창조경제 실현방안 찾아봅시다"

산림청 · 국회 · 임학회 산림정책토론회 "산림의 탄소흡수 확대방안 모색"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한데 모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산림청은 4월 1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기후포럼 및 한국임학회와 함께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흡수원 증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원섭 산림청장과 김성곤 국회기후포럼 대표의원,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및 윤여창 한국임학회장을 비롯해 김제남 기후포럼 책임연구의원, 최선덕 산림조합 연구소장, 박인규 SK임업 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이경학 기후변화연구센터장, 이우균 고려대 교수, 김은식 국민대 교수 등 정계·학계·민간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신원섭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림 분야의 역할을 강조한 탄소흡수원법 시행을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 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산림정책에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탄소흡수원법 시행에 따라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산림 유

지·증진 활동으로 유도하고 이로 인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를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김진아 사무관(042-481-4199)

명품도시숲 설계실력 보여주세요

제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1900만원 상금 5월 참가신청, 9월까지 제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명품 도시숲 설계 실력을 겨루는 도시숲 설계공모전이 열린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도시숲 조성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한다. 대상 500만원 등 모두 19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설계공모대전의 주제는 '국민이 행복한 도시숲' 이다.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작품은 9월 6일까지 제출받는다. 산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알림마당-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의 설계 대상지는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고 실제로 도시숲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원상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공모전이 도시숲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라며 "도시숲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과 일반인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작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종근 사무관(042-481-4224)

"국민에게 행복주는 숲 만듭시다"

이동필 농림장관, 4월 12일 산림청서 업무보고 받고 "산림복지 확대" 강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2일 오전 산림청을 찾아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 자리에서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을 비전으로 한 5가지 주요 추진과제와 당면 현안사항 등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풍성하게 자란 우리 산림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키워 국민과 임업인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자." 며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막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도 신경 써 달라" 고 당부했다. 신 청장은 이에 대해 "산림정책과 농업정책이 상생협력하며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첫걸음" 이라며 "임

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하경수 사무관(042-481-4051)

40년간 매년 한옥 30만채 지을 나무 늘었다

1972년보다 나무량 11배 증가, 토양도 비옥해져…"꾸준한 산림경영 결과"

우리나라 나무의 양이 40여년 만에 1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2년 7000만㎥에 불과하던 입목축적이 40여년이 지난 2010년 현재 약 8억㎥로 증가한 것. 나무의 수도 크게 늘어 1ha당 1300그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평형 한옥에 들어가는 나무양이 약 60㎥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한옥 1200만 채를 지을 수 있는 양이다. 지난 40년 동안 해마다 한옥 30만 채를 지을 나무가 늘어난 셈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산림자원 평가보고서' 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2년 당시 58.2%(345만ha)였던 어린나무 면적이 2.6%(2만ha)로 줄어든 반면, 가슴높이 직경 30cm 이상의 나무가 50% 이상 분포하는 산림인 큰 나무 면적은 0.2%(2만ha)에서 30.4%(187만ha)로 늘어 황폐지였던 산림이 울창한 숲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변화는 자연적 임목생장 외에도 그동안의 계획적으로 국유림을 경영하고 숲 가꾸기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림을 관리해 온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의 모습 변화도 뚜렷하다. 1972년에는 침엽수림이 전체의 절반 이상(54.5%)이었지만 현재는 41.9%로 줄었고 활엽수림이 17.4%에서 27.9%로 늘었다. 이는 조림수종이 다양해졌고 병충해와 산불 피해를 많이 받은 소나무 등 침엽수림이 참나무류 활엽수림으로 대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9억1000만톤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는 나무가 4억5700만톤(50.1%), 토양 4억1700만톤(45.7%), 낙엽층 3800만톤(4.2%)이다. 토양층의 탄소저장량은 활엽수림이 83.2톤/ha이고 혼효림 및 침엽수림은 각각 65.3톤/ha과 59.1톤/ha으로 나타났다. 산림발달의 기반이 되는 토양의 깊이는 평균 52cm였고 31~60cm의 토심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토양은 갈색을 띤 약간 건조한 사질양토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까지 황폐화가 심했으나 사방사업과 나무심기 등으로 숲이 울창해지면서 깊이도 두터워져 산림토양의 비옥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산림에서 산림경영활동이 가능한 경사 25° 미만의 산림은 86%였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203종의 나무 나이테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산림청은 이 자료로 수종과 기후, 나무생장 등의 관계를 밝힐 수 있어 앞으로 조림수종 선정 및 미래 산림의 종 구성 예측 등에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의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김철중 사무관(042-481-4166)